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1년만에 전국 반열 '우뚛'

토크 쇼 '화요 초대석' 등 벤치마킹 잇따라 첫돌 기념 윤형주 콘서트, 추억展 등 마련

한국 문학사상 첫 유파문학관으로 건립된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이 개관 1년 만에 전국 문학관의 반열에 올랐다.

강진군에 따르면 시문학파기념관은 '시문학'지 창간일(1930년 3월 5일)에 맞춰 지난해 3월 5일 개관했다. 시문학파기념관은 개관 1년만에 참신한 기획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은 물론 문단과 학계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지역문학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를 굳혀나가는 중이다.

개관과 더불어 한국문화협회 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데 이어 문화체육

관광부 시행 '2012 작가 파견 공모사업'에서도 58개소의 기존 문학관과 경쟁해 7개 문학관에 포함되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이 같은 성공적 배경에는 강진군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뒷받침과 박사급 전문가 영입, 지역민의 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문학관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학콘텐츠 전문가를 임용해 2년여 간 전국 문학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결과를 치밀하게 분석, 시문학파기념관의 독특한 맞춤형 모델을 구축했다.



관객들이 오는 5일로 개관 1주년을 맞는 강진 시문학파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특히 토크 쇼 형식으로 진행되는 '화요일 밤의 초대 손님'은 지난해 12월 초 대전문화관에서 열린 전국 문학관 워크숍에서 성공사례로 발표돼 문학관 운영의 롤 모델로 제시됐다.

매일 마지막 주 화요일 밤 7시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작가 선정은 강진군에 주소를 둔 현지 거주자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번방에 있는 지역예술가들에게 자금심과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시문학파기념관은 한국 문단사상 유일무이한 유파문학관을 뿐만 아니라 1930년대 한국 문학사를 관통하는 문학공간으로서 큰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시문학파기념관이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성원과 관심 덕분이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시문학파기념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4일 밤 8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가수 윤형주 콘서트를 시작으로 10일까지 기념관 야외 무대에서 김재홍 경희대 교수의 학술강연, '화요일 밤에 만난 사람들' 추억전 등을 연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3월 참살이 수산물엔 홍어·미역

전남도해양과학원 선정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3월의 제철 참살이 수산물로 홍어와 미역을 선정했다.

홍어는 한번 맛을 들이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맛과 특유의 냄새를 가졌다. 특히 남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오감을 자극하는 고향의 맛이다.

'날씨가 쌀 때는 홍어생각, 따뜻한 때는 굴비생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겨울에서 초봄이 제철이다.

홍어는 관절염, 류머티즘, 신경통, 기관지염에 효과가 좋으며 감기에 특효가 있다.

삭힌 홍어는 산성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주며 위산을 중화시켜 위염을 억제하고 대장에서는 강 암모니아로서 잡균을 죽

여 속을 편하게 해준다.

미역은 '바다의 불로초'로 불릴 정도로 요오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산후조리에 좋다.

고려 인종 원년(1123년)에 송나라의 사신 서경이 편찬한 '고려도경'에는 "미역은 귀천 없이 즐겨 먹고 있다. 그 맛이 짜고 비린내가 나지만 오랫동안 먹으면 먹음만하다"고 적혀 있다.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 섬유질 성분을 함유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다량류를 다양 함유하고 있다.

산성 다량인 퓨코이딘도 미역에 다량 존재해 다양한 생리활성 작용을 나타낸다.

홍어는 신안 흑산도 해역에서 잡히고 있으며 미역은 고흡과 완도 등 전남지역에서 90% 이상 생산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y@kwangju.co.kr

전남도 문화재 돌봄사업 12억 투자

289개 대상 모니터링 강화

전남도는 올해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문화재 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남도내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등 289건이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관리가 소홀한 문화재에 대해 순찰활동 강화, 잡초 제거, 제설작업, 배수 등 정비, 주변 청소 등 관광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창호나 벽체, 마루, 기와 등 경미한 피해는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관바로 복구한다.

문화재는 석축 배집 등 사소한 결함을 방지하면 붕괴 등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돌봄사업이 막대한 보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전남도는 문화재에 대한 정기적



지난해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이었던 완도 묘당도의 이충무공 유적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35명의 기동 보수반과 문화재 훼손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국보 제144호) 등 문화재 210여건에 대해 600여 차례 모니터링과 기와 교체, 지붕 위 초본식

물 제거, 청소 등 1085건의 수리를 했다.

이 사업은 사단법인 문화재예방관리센터에서 주관하며 내년부터는 도 지정문화재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y@kwangju.co.kr



구계등 갯돌이 돌아왔다

지난해 8월 세 차례의 태풍 때 바다로 쓸려 내려간 완도군 정도리 구계등(명승 제3호) 갯돌이 되돌아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공원사무소는 태풍이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쓸려나간 갯돌이 6개월 사이에 80~90cm 쌓이는 등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필뉴스

진도 토요일속여행 공연 내일 개막

남도 여행의 대표 코스로 자리 잡은 진도 토요일속여행 상설공연이 2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연중 풍성하게 펼쳐진다.

개막 공연엔 남도들노래, 한량무, 단막창극, 판소리, 관광객과 함께하는 신명의 아리랑 공연이 선보인다.

공연 기간엔 진도 전통민속민요, 무형문화재, 유명 국악인 초청공연,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진도아리랑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기획공연을 할 계획이다.

올해는 예술단 상임단원 확보로 공연 질 향상과 다양한 기획 공연이 가

능해졌다.

애초 4~12월까지 공연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한 달 앞당겼다.

지난 1997년 시작한 토요일속여행 상설공연은 16년간 545회 공연에 25만여명이 다녀갔다. 진도 전통민속 민요를 소개, 관광객의 호평을 받았다.

김지향 진도군 문화예술담당은 "토요일속여행 상설공연은 진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최고의 관광상품이 됐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장성 첫 '도시농업협의회' 구축

장성군이 도시농업 활성화 일환으로 광주시 근교 군으로는 최초로 '도시농업협의회'를 구축했다.

도시농업협의회는 최근 도농 소통의 새로운 채널로 부각되고 있는 도시농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기업, 학계, 연구소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시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지난달 26일에는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회관에서 이상배 소장을 비롯한 송정섭 농촌진흥청 도시농업팀장, 한태호 전남대 교수, 이기상(사)도시농업포럼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농업협의회 첫 번째 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도시농업의 이해와 활용'이란 주제로 송정섭 팀장의 특강과 함께 광주·전남 도시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도시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의 장이었다.

장성군은 지난 2011년부터 광주시 소비자농업협회를 시작으로 하지 않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말 텃밭농장 2곳을 분양하고 원예교실 등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성=김홍호기자 yongho@

이달부터 5세 미만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

도내 전 보건소서

전남도는 지금까지 부모가 희망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실시해오던 5세 미만 아동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이달부터 도내 전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도내 전 보건

소에 백신과 접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22개 시군 소재 의료기관 123곳을 예방접종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본인이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전남도내 민간 의료기관 뇌

수막염 예방접종 실적은 4만5744건으로 약 23억원(건당 4만~5만원 기준) 내외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해구 전남도 보건한방과장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표준접종기준에 맞춰 적기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영유아를 둔 부모께서는 예방접종 일정을 꼼꼼히 챙겨 정해진 날짜에 빠짐없이 접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y@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기적중얼거라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